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두달째 마이너스

9월 광주 -0.5%, 전남 -0.6%...무·상추·휘발유·교육비 ↓
내수침체·수출악화 등 경기침체에 고용·소비 위축 우려

지난 8월 47개월만(전년동월 대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나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의 상품·서비스가격 지속 하락) 우려도 나온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하락했다. 전남지역은 이보다 낮은 -0.6%를 나타냈다.

전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1%를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뒷걸음질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침체·수출악화 등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악화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시 물가를 끌어내리고 상품가격 하락, 경기침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이자다.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 저물가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에 올해 작황 호조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내린 영향 때문이지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광주 -7.7%, 전남 -5.5%), 휘발유값 등 공업제품(-0.3%, -0.4%), 무상교육 등 공공서비스(-1.1%, -2.7%) 등이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광주 지역의 경우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7.7%, 공업제품 -0.3%으로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4%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무(-51.4%), 상추(-43.5%), 토마토(-34.1%), 고등어(-13.9%), 휘발유(-7.2%), 휴대전화료(-3.5%), 해외단체여행비(-4.2%), 고등학교납입금(-33.3%) 등이 크게 내렸다. 반면, 쌀(7.1%), 돼지고기(2.7%), 갈치(22.3%), 공동주택관리비(7.4%), 침대

(12.9%), 비데(16.2%), 외식(4.2%), 건강기능식품(2.4%), 자동차보험료(4.9%) 등은 올랐다.

전남지역도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5.5%, 공업제품 -0.4%로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3%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돼지고기(-5.6%), 자동차용LPG(-11.7%), 남자학생복(-53.0%), 병원검사료(-10.5%), 고등학교납입금(-100%) 등이 내렸고, 생강(77%), 고등어(6.7%), 한방료(10.8%), 택시료(13.3%) 등이 올랐다.

정부 당국은 "일시적·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라며 "연말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라 기름값이 오름세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잇단 태풍 피해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2.42 (+9.37)
- ↑ 금리(국고채 3년) 1.32 (+0.03)
- ↑ 코스닥 632.10 (+10.34)
- ↑ 환율(USD) 1199.00 (+2.80)



한국거래소, 광주 코스닥·코넥스 상장 설명회

한국거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1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지역 초기·중소벤처기업 60여개사를 대상으로 상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코넥스, 코스닥 상장 및 중장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거래소의 'KSM(KRX Startup Market), 코넥스, 코스닥 시장을 통한 초기·중소벤처기업 성장전략', 광주시의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사항', 광주지역 상장기업인 오이슬루션의 '기

업공개(IPO) 성공사례' 등이 발표됐다. 김성태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이번 상장설명회가 광주지역 내 유망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보다 큰 성장의 기회를 누리려고 코스닥·코넥스시장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거래소는 광주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비맥주, 건전 음주문화 정착 앞장

새내기 운전자 음주운전 안하기

오비맥주(대표 고동우·원목 세번째)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함께 최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전음주 정착을 위해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고동우 오비맥주 대표와 임직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내기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을 받았다.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 카드에 직접 이름을 적으며 건전음주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피해 사례, 예방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전시하고 '달라진 도로교통법 OX 퀴즈'도 운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7월에 실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의 수상작을 실제 차량 스티커로 제작해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면허증과 함께 배부했다. 차량 스티커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무료로 배부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운전습관이 확립되는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도록 3년째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류업체 선도 기업으로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가입 이벤트

매월 100명씩 3회 경품 추첨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숙)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가입하고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 '광주은행 개인뱅킹(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하고,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해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자동 응모된다. 입출금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광주은행 개인뱅킹(스마트뱅킹)' 앱에서 입출금계좌 개설과 스마트뱅킹 가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경품추첨은 매월 100명씩 3회에 걸쳐 총 300명의 고객을 추첨할 예정이며, 경품으

로 스타벅스 e-Gift 카드 2만원권이 증정된다.

광주은행 백성 디지털전략부장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께 가장 편하고 사랑받는 손안의 디지털뱅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더욱 편리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웹기반의 모바일앱뱅킹을 새롭게 구축,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이 전달한 URL을 통해 고객이 직접 상품 가입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금융 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대학생 취업 선호 대기업 1위·공기업 2위

한국경제연, 취업인식도 조사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공기업 제치고 대기업이 1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연봉이 높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도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3.0%가 대기업을 뽑았다. 이어 공사 등 공기업 19.8%, 중견기업 12.7%, 정부(공무원) 10.9%, 외국계기업 7.7%, 중소기업 6.8%, 금융기관 4.8% 순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18.7%)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25.0%로 1위였던 공기업은 5.2%포인트 낮아져 2위가 됐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이 높은 연봉에 이른바 '워라밸'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환경연은 분석했다.

다만,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1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5.4%), 공사 등 공기업

(15.0%), 대기업(14.8%), 정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취업 선호도(6.8%)와 실제 취업 예상도(17.3%)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어렵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30.6%), 잘 모르겠다(20.6%), 작년보다 좋다(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어렵다는 응답이 5.0%포인트 증가한 반면, 좋다는 답변은 1.6%포인트 줄어 채용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만원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3586만원)이 여학생(3427만원)보다 159만원이 더 많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준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이 77.5%, '있다'는 19.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응답자 23.9%보다 4.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 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추후 공지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